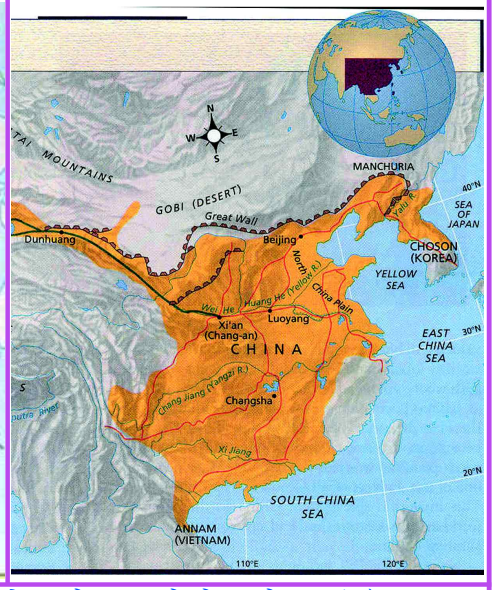
현재까지 왜곡되어 온 한국사 교육과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비교표(202건)

고대 한국 영토를 중국 영토로 가르치는 한국과 세계의 역사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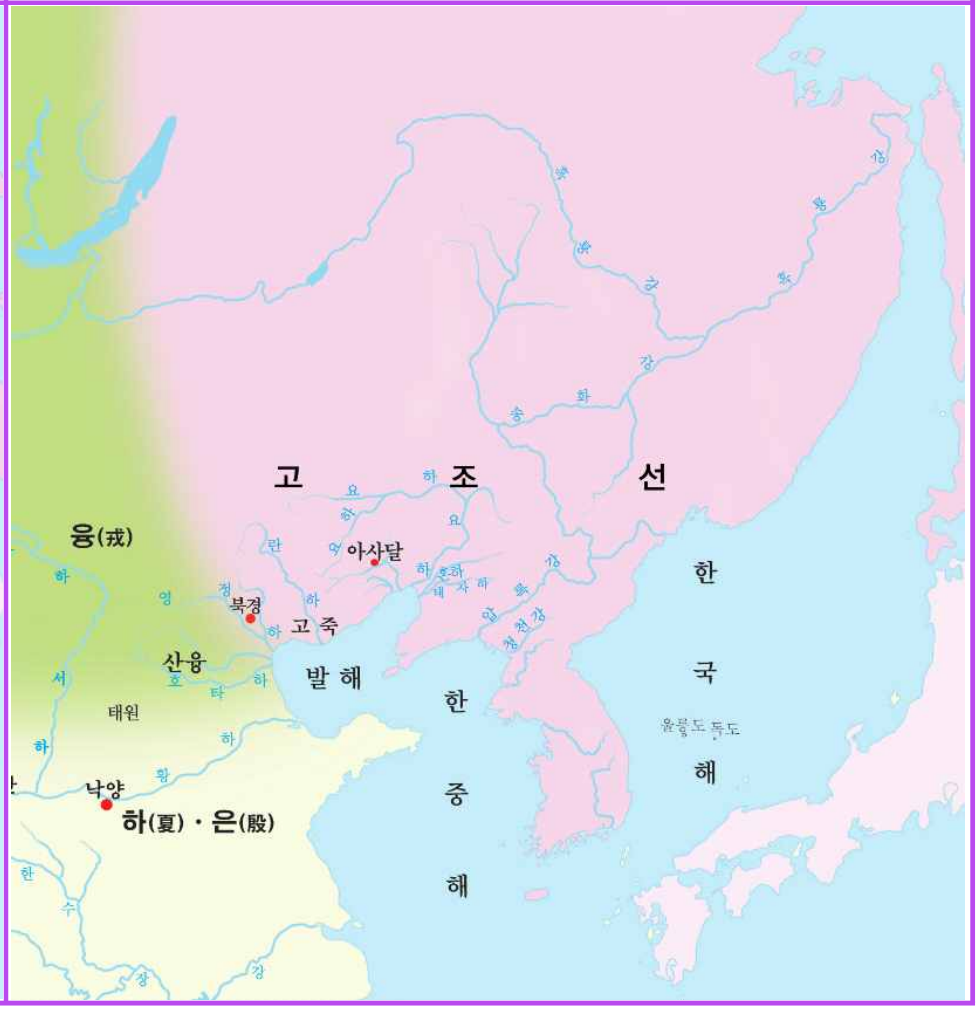
한반도 북부지역을 중국영토로 가르치는 한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1]	한국 영토 대부분을 중국(전한) 영토로 가르치는 일본의 역사교과서[2]	고구려 영토 대부분을 중국 영토로 가르치는 중국의 역사교과서[3]	한반도 북·중부지역을 중국 영토로 가르치는 미국의 역사교과서[4]
			

위만조선 영역이 한반도 북부에 한정되었고, 중국(漢)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낙랑·임둔·진번·현도군)을 설치하여 한반도를 지배했다고 왜곡한 한국사교육을 한 눈에 보여주는 한·미·일·중 역사교과서 지도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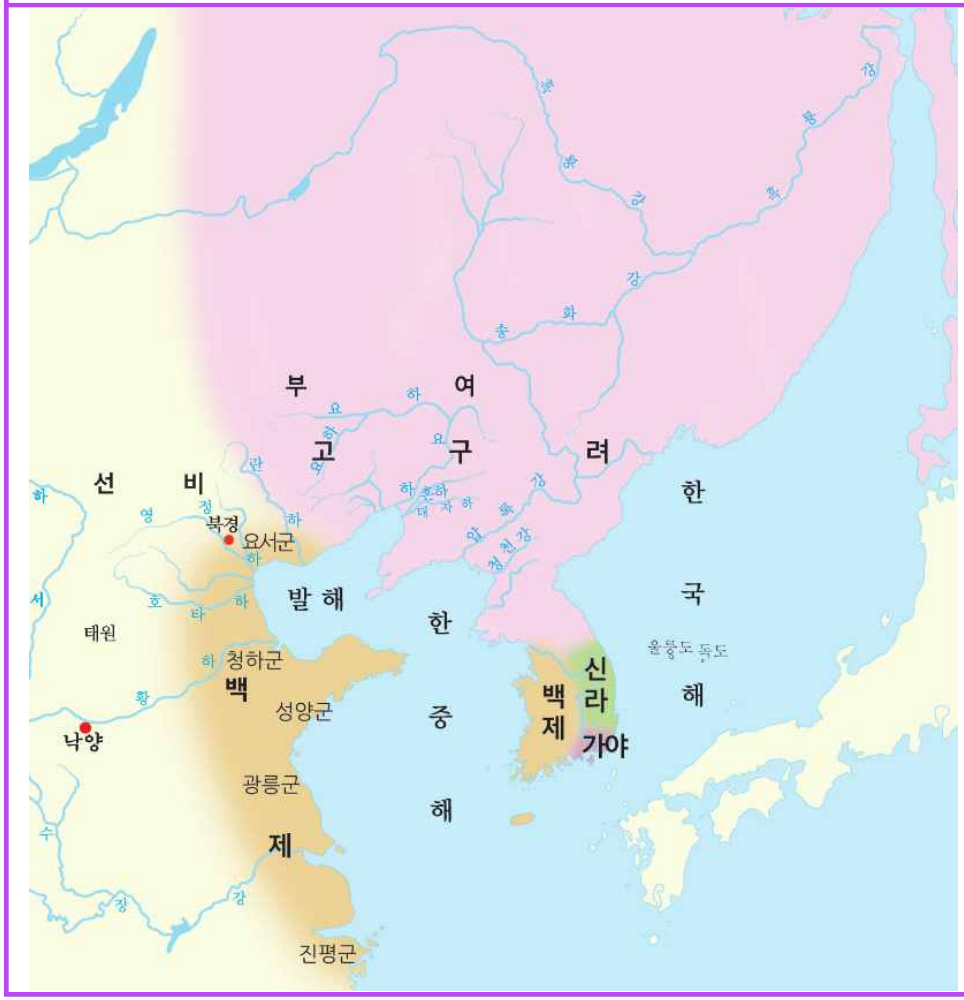
1) 정재정 외 10인, 『중학교 역사①』, 지학사, 2015, 40쪽.
2) 黑田日出男 외 10인, 『中學生の歷史』, 帝国書院, 2012, 12쪽.
3) 张霞 主編, 『历史与社会图册 八年级上册』, 中国地图出版社編制出版, 2003(2004년판), 10쪽.
4) 『World History』, Holt, Rinehart and Winston, 2002, 7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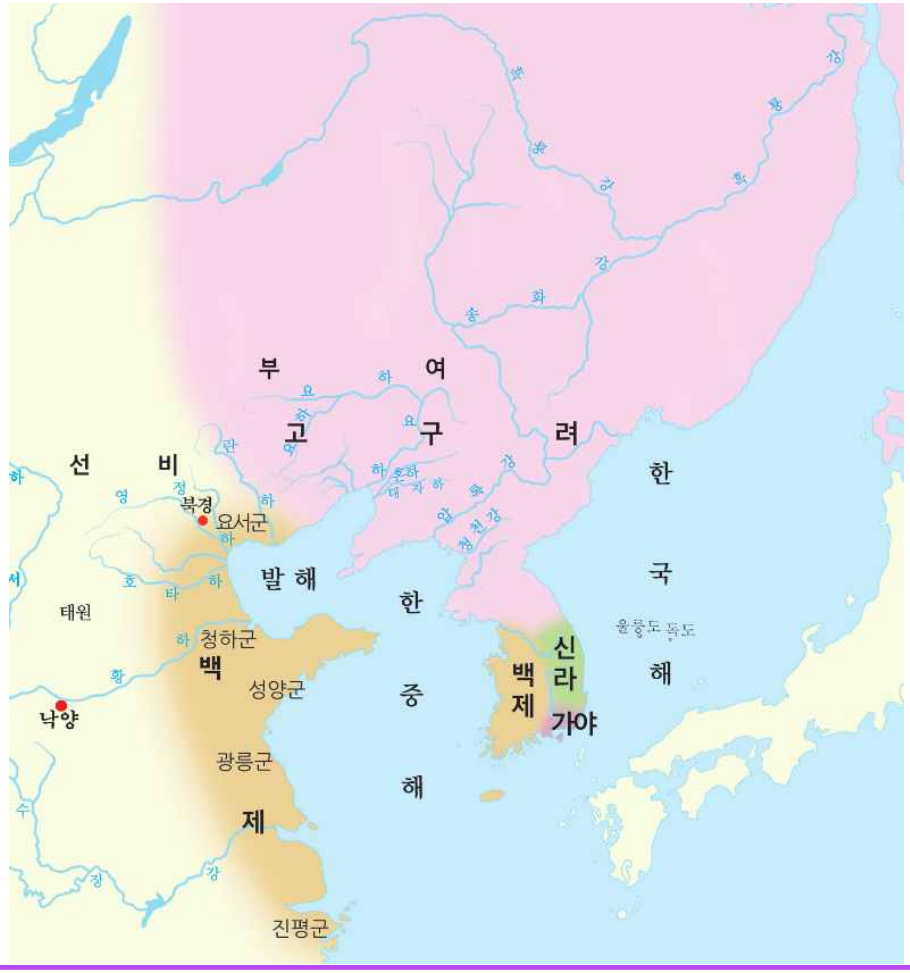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실제 한사군 · 요동군 위치도와 교과서의 왜곡된 한사군 · 요동군 위치도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신시 영역(6,000년 전 전후)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고조선 영역(4,000년 전 전후)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중·후조선 영역(2,200년 전 전후)	한국 역사 교과서의 고조선 영역(2,200년 전 전후)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 영역(서기 50년 전후)	한국 역사 교과서의 한국사 영역(서기 50년 전후)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오국시대 영역(서기 300년대)	한국 역사 교과서의 한국사 영역(서기 300년대)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오국시대 영역(서기 400년대)	한국 역사 교과서의 한국사 영역(서기 400년대)
	

세계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역사가 중에 가장 위대한 역사가 그 이름 김종서

김종서 박사는 중앙대 강의 때문에 외출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재를 털어 마련한 연구실에서 밤낮을 살았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대인관계를 철저히 차단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인고의 세월이 다음에서 보시듯이 한국과 중국, 세계의 역사교육을 바꾸어야만 할 대단한 연구업적이 202건(종교 연구는 제외)이나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고, 수백편의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되고, 중심 내용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수많은 천재 학자들이 수백 년 이상 동안 단 하나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던 수많은 역사의 진실들을 김종서 박사 홀로 전부 밝혀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김종서 박사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실증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고대 중국 사료를 고증하고, 유물유적을 분석하여 고대 역사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구 방법인 '수학적인 방법으로 위치를 찾는 방법'을 창안하여 고조선, 한사군・대방군을 비롯한 한나라의 군・국들의 위치와 당나라의 도호부・도독부・주 등의 실제 위치・만리장성의 동단 등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지역, 국가 등의 실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①고대도로와 현대도로의 거리를 비교하여 위치를 찾는 방법, ②도로의 굴곡지수와 수평직선거리로 위치를 찾는 방법, ③지도상의 단순거리로 위치를 찾는 방법"인 '수학적 위치 고증 방법'입니다.

김종서 박사는 흉노와 산융・동호・선비의 실제 영토 위치를 밝혀내고, 고조선과 한사군・대방군을 비롯한 한나라의 군국들의 실제 위치, 고구려・백제의 실제 영토 위치를 밝혀냄으로서, 중국이 고조선・고구려・발해가 중국사이고 한반도가 중국의 고토(古土)라는 주장과 역사 교육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잘못된 교육과 주장이라는 것을 증명하였고, 한국・중국・일본을 비롯한 세계에서 한반도가 중국의 고토(古土)라고 가르치는 역사교육이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교육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반도 북부가 중국 영토였다는 영유권 주장의 근거, 한반도 북부가 중국의 고토이니 수복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없앴습니다.

이러한 김종서 박사의 연구 결과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세계 역사교육을 바로 잡기만 하면, 한국과 중국의 역사분쟁, 영토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종서 박사와 우리 역사모가 중국의 한반도 침략전쟁을 예방하고, 세계 3차 대전을 예방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나 진실이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역사모가 한국과 세계의 역사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애국시민들께서 역사모의 회원이 되어 주시면 그러한 큰일, 한국사에 있어서 가장 큰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왜곡된 한국사 교육과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비교표(202건)

다음은 한국고대사 전공 정통역사학자인 김종서 박사가 사재를 모두 털고 젊음을 바쳐서 실증적, 객관적, 논리적, 과학적, 수학적 위치 고증 방법(고대도로와 현대도로의 거리를 비교하여 위치를 찾는 방법·도로의 굴곡지수와 수평직선거리로 위치를 찾는 방법·지도상의 단순거리로 위치를 찾는 방법)**으로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과 모화사관·사대주의사관, 일제식민사관에 의하여 축소·말살·왜곡되어 온 한국역사교육 내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1	구석기문화	흑룡강유역, 연해주, 내몽고·외몽고 동부지역, 발해 북쪽 지역을 포함한 요하유역, 한반도 등의 구석기 문화는 고대 한국인 조상들이 남긴 문화이므로 한국의 구석기문화에 포함시켜야 함.	한반도 안의 구석기 문화만 축소하여 가르침 (압록강·두만강 밖의 한국인 조상들의 문화를 한국사에서 배제한 잘못된 역사교육)
2	신석기문화	①세계 최초로 정주(정착)문화가 시작된 흑룡강 유역 문화, ②연해주문화, ③발해 북쪽 지역을 포함한 요하문명(흥륭와문화 / 홍산문화), ④한반도의 신석기문화 등은 고대 한국인 조상들이 남긴 한국문화이므로 한국의 신석기문화, 한국문명으로 가르쳐야함.	한반도 안의 신석기 문화만 축소하여 가르침 (압록강·두만강 밖의 신시·고조선·부여인 및 그 조상들의 역사문화를 한국사에서 배제한 잘못된 역사교육)
3	청동기문화	발해 북쪽·요하유역의 하가점하층문화와 하가점상층문화, 흑룡강유역·연해주·한반도의 청동기문화는 고대 한국인 조상들이 남긴 문화이므로 한국의 청동기문화, 한국문명으로 가르쳐야함.	한반도 안의 청동기 문화만 축소하여 가르침 (압록강·두만강 밖의 신시·고조선·부여·예맥인 및 그 조상들의 역사문화를 한국사에서 배제한 잘못된 역사교육)
4	한국 최초의 국가	신시(神市)	고조선으로 왜곡
5	최초의 건국시조	하느님의 아들인(혹은 하느님의 아들을 칭하는) 환웅천왕	고조선 건국시조인 단군 혹은 단군왕검으로 왜곡
6	신시의 건국 명분	질병과 식량부족으로 인한 마을과 마을,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약육강식의 인간세상을 법과 제도, 윤리도덕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교화시켜 인간세상을 구원(홍익인간)	내용 없음(신시를 한국사에서 제외시켜 왔음)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7	홍익인간	하느님(환인은 하늘님금 즉, 하느님·하나님을 불교의 천신으로 번역한 칭호)이 환웅천왕으로 하여금 인간세상을 구원하게 한 인간세상 구원이념	고조선 건국이념으로 왜곡
8	신시의 국가 제도	①풍습의 교화(풍백), ②치수·수로 관개(우사), ③천문관측·예언(운사), ④명령전달 및 무력(주명), ⑤사법(주형), ⑥농수산물생산(주곡), ⑦질병의 치료와 예방(주병), ⑧교육(주선악) 등의 국가제도를 갖춘 국가.	① 국가제도에 대한 내용 없음 ② 풍백, 우사, 운사를 두어 바람, 배, 구름 등 농경에 관계되는 것을 주관하게 한 것으로 왜곡
9	신시의 국가형태와 제왕의 수	① 하님의 아들·자손을 칭하는 천손족과 웅씨족(곰을 부족명칭으로 사용하는 부족) 등의 여러 부족이 모인 부족연합국가 ② 신시 약 2700년 동안 약 150명 내외의 제왕이 있었을 것임.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우는 환웅부족과 곰을 숭배하는 (미개한) 부족이 연합한 고조선 건국으로 폄하·왜곡한 교육.
10	신시의 건국 시기	홍산문화(서기전 4710 ~ 서기전 2920년)가 신시인들이 남긴 문화이므로 지금부터 약 7,000년 전 전후에 건국되었을 것으로 추정	내용 없음 (신시를 한국사에서 제외시켜 왔음)
11	신시의 도읍	내몽고 적봉시의 홍산성(홍산유지)	
12	신시의 문화	①누에를 길러 명주실을 뽑아 비단·명주를 만들어 입는 의류문화. ②상투머리를 하는 문화, ③옥귀걸이 옥목걸이 옥팔찌 착용문화, ④용을 인간세상과 천국을 왕래하는 탈것으로 생각하는 문화, ⑤적석총문화, ⑥빗살무늬토기문화, ⑦채도문화, ⑧거대한 신전을 세우고 인간의 모습을 한 신(하느님)을 섬기는 문화, ⑨곰, 호랑이 등의 동물을 부족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문화	내용 없음(신시를 한국사에서 제외시켜 왔음) 고조선인을 '동물을 숭배(토테미즘)'하는 미개인으로 왜곡
13	신시의 중심지역	발해 북안·대릉하 유역을 포함한 요하유역	내용 없음(신시를 한국사에서 제외시켜 왔음)
14	신시에 속한 제(諸) 부족의 분포 지역	영정하(북경·천진) 동쪽, 요하유역, 흑룡강유역, 연해주, 한반도	내용 없음(신시를 한국사에서 제외시켜 왔음)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15	신시의 멸망 원인	약 5,000년 전에 일어난 청동기문화의 발전으로 청동무기를 가진 부족이 이웃부족을 공격하는 등 부족 간의 전쟁 격화, 그러나 신시는 신시에 속한 각 부족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통제할 능력을 상실함.	내용 없음(신시를 한국사에서 제외시켜 왔음)
16	신시의 존속기간	서기전 5000년경 ~ 서기전 2333년 전 이전(약 2667년)	내용 없음(신시를 한국사에서 제외시켜 왔음)
17	고조선 국호 문제	본래 고조선이라는 국호는 없음. 단군왕검이 건국한 조선이 기자가 건국한 조선, 위만이 건국한 위만조선 보다 고대(옛날)에 있던 조선이라는 의미로 '조선(朝鮮)' 앞에 '옛 고(古)'자를 붙여서 '고조선(古朝鮮)'이라고 한 것임.	일본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단군왕검이 건국한 고조선의 역사적 실존을 부정하는 역사교육을 해왔음. 때문에 고조선 멸망 이후에 건국된 (중)조선(준왕 때 멸망하는 조선), (후)조선(위만조선)을 근세조선 보다 고대에 있었던 의미로 고조선이라고 왜곡한 교육.
18	단군왕검	단군(壇君)의 '단(壇)'은 최고 종교지도자(대제사장), '군(君)'은 최고 정치지도자(임금)의 칭호, 따라서 단군壇君)은 제정일치사회의 최고지도자 칭호. '왕검(王儉)'은 (고)조선을 건국한 1세 단군의 이름	'단군(壇君 / 檀君)'은 '제사장', '왕검(王儉)'은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칭호'라고 왜곡한 교육
19	단군의 수	1908년의 고조선 존속기간 동안 100명 이상의 단군이 대를 물려가면서 나라를 다스림.	단군은 단 1명
20	고조선 건국시기	서기전 2333년 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전에 대릉하유역을 포함한 요하 서쪽(요하 상류) 유역에서 시작되고 발전된 청동기문화를 기반으로 건국됨	① 고조선 영역을 요하의 동쪽으로 한정한 후, 청동기문화가 서기전 2000년 ~ 서기전 1500년경에 요하 동쪽지역으로 도입되었고, 그 청동기문화를 기반으로 고조선이 건국되었다고 왜곡한 교육.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20	고조선 건국시기		② 그러므로 서기전 2333년 전에 1세 단군 왕검이 건국한 고조선의 건국역사와 고조선 전기 역사는 자연히 부정하는 교육임.
21	고조선 건국 명분 및 고조선의 국가형태	① 5000년 전에 청동기가 등장했고, 청동무기로 무장한 부족은 토지·재산·노예의 획득 등을 위하여 이웃 부족을 공격했고, 각 부족 간의 전쟁이 그치지 않았음. 때문에 각 부족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각 부족의 무력 충돌을 통제할 국가가 필요하였음. ② 이때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천왕과 웅씨족의 처녀인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왕검이 천하를 평정하고 발, 숙신, 고죽, 언, 예, 맥, 부여, 옥저, 구려, 한 등의 제(諸) 부족이 연합한 부족연합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하였음.	자세한 내용 없음 ① 신시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을 고조선 건국 이념으로 왜곡 ② '자신들의 직계 조상을 하느님으로 믿음' 혹은 '자신들의 조상을 하느님으로 믿음'을 '자신들의 조상을 하늘에 연결'이라고 왜곡
22	고조선 유물·유적	고조선에 속한 제 부족이 남긴 문화인 '후기 요하문화(하가점하층문화·하가점상층문화로 대표되는 발해 북쪽 지역·대릉하유역·요하유역의 문화)', 후기 흑룡강문화, 후기 연해주문화 등의 유물·유적을 고조선 유물·유적으로 가르쳐야 함.	한반도 안의 유물·유적에 한정하여 가르침
23	비파형동검문화	대릉하유역·요하서쪽 유역의 비파형동검 문화를 고조선에서 만든 문화로 가르쳐야 함.	대릉하유역·요하서쪽 유역의 비파형동검 문화를 한국문화에서 배제(주류 사학자들은 요하 서쪽의 비파형동검을 산융의 유물로 왜곡)
24	고조선의 도읍 명칭	① 고조선의 도읍 이름은 아사달, 백악산아사달, 장당경임. ② 왕검성(王儉城)은 위만조선의 왕험성을 왕검성으로 조작한 명칭.	(중조선과 후조선의 도읍을) 왕검성(王儉城)으로 왜곡.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25	고조선의 도읍 위치	아사달, 백악산아사달, 장당경의 위치는 대릉하 유역의 요녕성 조양(朝陽)・능원(凌源)・객좌(喀左) 지역에 있었음.	평양(平壤)
26	고조선의 중심지역	대릉하・요하유역	평양(平壤)
27	고조선의 영토 넓이 및 위치	①영토의 크기 사방 8,000리, ②서쪽은 영정하(북경・천진), 동쪽은 연해주, 남쪽은 한반도까지, 북쪽은 흑룡강 북쪽 지역.	요하 동쪽 일부 및 한반도 북부로 축소・왜곡한 교육
28	다섯 개의 조선	①단군왕검이 건국한 (고)조선, 또는 단군왕검의 왕검이 건국한 왕검조선, ②고조선이 서기전 425년에 멸망 후, 고죽국에서 국호를 조선으로 변경한 중조선, ③위만이 중조선을 멸망시키고 건국한 후조선, ④조선유민이 한반도로 이주하여 건국한 동조선(고구려 남쪽에 있던 조선), ⑤태조가 건국한 (근세)조선	고조선, 중조선, 후조선을 모두 고조선으로 가르침 (동)조선에 대한 내용 없음.
29	고조선 전성기	고조선은 고조선에 속한 북경・천진 지역의 언(匽), 창려 지역의 고죽 등은 물론, 은나라 후기・주나라 초기에 산동성에 있던 '기(㠱)・하남성의 채(蔡) 등 수십 나라로부터 당대의 최고 보물인 청동제기를 상납 받는 강대국이었음.	언후(匽侯)명 청동기를 근거로 대릉하유역 등의 요하 서쪽지역이 은말・주초(서기전 1117년 전후)에 이미 중국 영역이 된 것으로, 그 이후에는 산융・동호의 영역이 되었다는 대전제하에 국사・역사・한국사 교과서를 편찬하고 교육하여 왔음
30	고조선의 모직물 수출 산업	고조선은 모직물을 중국 제나라 등에 수출하는 모직물생산 선진국이었음.	고조선은 일찍이 중국의 제나라와 교역하여 선진 문물을 수용하였다고 왜곡
31	고조선 멸망 원인	중국 전국시대(신하가 주군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아 자신의 나라를 건국하고, 끊임없이 영토 쟁탈전을 벌이는 시대) 영향으로 천손족에 속한 각 부족, 부족국가들이 분열되었기에 황제와 같은 존재인 단군이 각 부족, 부족국가들을 조정・통제할 능력 상실.	내용 없음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32	고조선 존속 기간	1908년(서기전 2333년 건국 ~ 서기전 425년 멸망)	내용 없음
33	제1의 '요수(遼水)'	'제1 요수(遼水)'는 고조선과 춘추시대 연(燕)의 국경선, 요수는 영정하(永定河){회하(恢河)→상간하(桑干河)→영정하(永定河)}. 영정하는 북경·천진의 서부 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흘러서 발해로 들어가는 강.	고조선과 중국 연(燕)나라의 국경선인 요수(遼水)가 현재의 요하(遼河)라는 대전제하에 국사·역사·한국사 교과서 편찬 및 교육
34	고죽, 이지(영지), 언(匽), 요동, 숙신	고죽, 이지(離支 : 영지令支), 언(匽)·요동·숙신은 고조선에 속한 부족국가(제후국 혹은 거수국)들. 고죽·이지는 란하 하류 유역, 언·요동은 북경·천진 지역을 영역으로 한 고조선의 제후국.	내용 없음 (고죽, 이지(離支·영지令支), 언(匽)·요동·숙신 역사를 한국사에서 제외)
35	산융·동호의 위치	산융·동호 영역은 산서성 중북부·하북성 북서부 지역 및 그 북쪽의 내몽고·외몽고 지역으로부터 란하(灤河) 상류의 북쪽지역 이러한 산융·동호의 실제 위치를 밝혀냄으로서 란하 동쪽의 서요하유역·대릉하유역에서 발생하고 발전한 세계 최초의 문명인 요하문명이 한국인 조상들이 남긴 문화라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음. 즉, 한국 최초의 국가인 신시와 1세 단군 왕검이 서기전 233년 전에 건국한 고조선이 서요하유역·대릉하유역을 영역으로 한 국가로서 요하문명의 주인공이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북부여·부여가 서요하 유역과 그 북쪽에 있던 국가라는 역사적 사실도 입증할 수 있게 되었음.	산융·동호 영역을 하북성 동부 지역에서 요하 서쪽 지역 및 서요하와 동요하가 만나는 쌍료(雙遼)와 그 북쪽 지역까지, 후기 동호의 동쪽 영역을 쌍료(雙遼)로부터 그 북쪽 지역까지로 인식하고 가르쳐 왔음. 자연히 고대 한국사 영역은 요하 동쪽 및 쌍료 북쪽의 동쪽 지역으로 한정되었음. 때문에 서요하 유역 및 대릉하 유역에서 발생하고 발전한 세계 최초의 문명인 요하문명을 한국사에서 배제하는 근거가 되어 왔음 요하 동쪽 지역의 청동기문화의 상한은 서기전 2000년 ~ 1500년경. 따라서 1세 단군 왕검이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35			서기전 2333년 전에 건국한 고조선 역사는 최소한 333년에서 833년 이상 부정한 역사교육.
36	오환・선비의 위치	산융은 동호가 되고, 동호는 오환・선비가 됨. 오환・선비의 동쪽 경계 또한 란하(灤河)의 동쪽・란하 상류의 북쪽까지임.	선비 동쪽 영역을 서요하와 동요하가 만나는 쌍료(雙遼)와 그 북쪽 지역까지로 왜곡. 따라서 부여・고구려 영역이 쌍료(雙遼)와 그 북쪽 지역의 동쪽 지역으로 축소.
37	연나라 장수 진개의 동침	연나라 장수 진개가 (중)조선 땅 2,000리를 빼앗았다는 『위략』의 기록은 조작된 기록. 연나라 소왕 때 진개가 조선을 침공하여 조선 땅 2,000리를 빼앗았다는 역사왜곡을 밝혀냄.	고조선이 연나라 장수 진개에게 요하 동쪽의 2,000리를 빼앗기고 청천강(혹은 압록강) 남쪽의 약소국이 되었다고 왜곡.
38	진개는 조나라 인물	『사기』의 연나라 장수 진개가 동호를 1000리 물러나게 하였다는 기록은, 전국시대 조(趙)나라가 산서성 대현(代縣)과 그 인근 지역을 영토로 했던 대(代)나라를 멸망시키고 뺏은 대(代) 지역을 수복한 동호로부터 대(代)지역을 다시 탈환한 전쟁이 왜곡된 것.	전국시대 연나라 진개가 요하 서쪽의 동호 땅 1,000리를 빼앗아서 연나라 동쪽 국경이 요하에 이른 것으로 왜곡.
39	중조선 건국	고조선이 멸망한 서기전 425년 이후 고죽국이 조선(朝鮮)으로 국호를 변경. 국호 변경 이유는 천속족에 속한 제(諸) 부족의 맹주국이었던 조선(朝鮮)을 계승한 국가라는 것을 대외에 표명할 목적. 중조선은 마지막 왕인 준왕(準王)이 위만에게 멸망당하는 서기전 194년까지 232년을 존속한 국가.	연나라 장수 진개가 요하 서쪽・대릉하 유역에 있던 동호 땅 1000리 빼앗았다고 가르쳐 왔음.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40	중조선 존속 기간	고조선이 멸망한 서기전 425년 이후 ~ 서기전 194년	내용 없음
41	중조선의 영토	①전국시대 전기의 중조선 서쪽 국경은 영정하. ②전국시대 후기의 중조선은 연(燕)나라에게 요동(영정하 동쪽의 북경·천진과 당산 등)을 잃고, 란하(때로는 산해관 인근)로부터 대릉하 유역까지를 영역으로 함. ③북부여, 임둔, 진번, 예, 맥, 한, 진국, 숙신, 구려 등의 수많은 천손족 국가들이 병존하고 있었음.	①고조선 영역을 요하의 동쪽으로 한정한 교육. ②서기전 300년 경 연나라 장수 진개에게 서북쪽 영토 2,000리를 빼앗기고 청천강(혹은 압록강) 이남의 한반도 북서부로 위축되었다는 교육.
42	제1의 패수(浿水) 위치	연(燕)에 요동을 빼앗긴 후 (중)조선·(후)조선과 한(漢)의 국경선이었던 패수는 내몽골 하북성을 흐르는 란하(灤河) 하류.	패수가 청천강(혹은 압록강)이라는 대전제하에 국사·역사·한국사 교과서 편찬 및 교육
43	중조선 멸망 원인	①전국시기 말기, 진(秦) 말, 초(楚)·한(漢) 대전, 한(漢) 건국 초의 혼란기에 연(燕)·제(齊) 지역 사람들이 중조선으로 대거 망명하여 옴으로서 중조선 내에서 연(燕)·제(齊) 유민들이 차지하는 정치·군사·경제·문화적 비중의 증대. ②연(燕)·제(齊) 유민들을 조직화한 위만의 반란.	내용 없음
44	제2의 패수 위치	①낙랑군 내부를 흐르는 패수(浿水). ②낙랑군 내부를 흐르던 강인 패수는 현재의 대릉하(혹은 소릉하).	내용 없음 (국경선이었던 패수와 낙랑군 내부를 흐르던 패수를 동일한 강으로 혼동하여 옴)
45	후조선 건국	위만이 전국시대 말기, 진(秦) 멸망, 항우와 유방의 초(楚)·한(漢) 전쟁, 한(漢) 초의 혼란 등을 피하여 조선으로 망명한 연·제 지역 사람들을 규합하여 큰 세력을 형성한 후, 중조선의 준왕을 축출하고 후조선의 왕이 됨.	동일 (중조선·후조선을 고조선으로 왜곡)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말살, 축소,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46	후조선 존속 기간	서기전 194년 경 ~ 서기전 108년	동일(중조선・후조선을 고조선으로 왜곡)
47	후조선의 영토	①란하 하류 동쪽으로부터 대릉하 유역까지를 영역으로 함. ② 후조선과 북부여, 임둔, 진번, 예, 맥, 한, 진국, 숙신, 구려 등의 많은 천손족 국가들이 병존하고 있었음.	후조선을 고조선으로, 그 영토 위치는 청천강(혹은 압록강) 이남의 한반도 북서부 지역으로 축소・왜곡한 교육
48	후조선 멸망 원인	고조선은 고대 한국의 수많은 부족・부족국가들의 연합국가(연맹국가)였음. 때문에 고조선의 단군과 각 부족・부족국가들의 거수・군장・왕의 관계는 중국의 제왕과 제후들처럼 엄격한 종속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 관계에 가까웠음. 당연히 각 부족・부족국가들은 각기 자주적인 외교, 교역 등을 할 수 있었음. 그러나 후조선은 중국의 제도를 따라서 임둔, 진번, 진국 등과 같은 이웃 국가들을 수직적인 종속관계로 복속시키고자 하였음. 때문에 후조선과 이웃 부족・부족국가들이 반목하게 되었고, 한(漢)나라의 조선 침공과 멸망으로 이어졌음.	내용 없음
49	조선 임금의 칭호	고조선 임금의 칭호는 단군(壇君), 중조선과 후조선의 임금 칭호는 왕(王)	
50	다섯 개의 부여	북부여, 부여, 동부여, 졸본부여, 남부여	북부여, 부여, 동부여, 졸본부여 구분 없음
51	북부여 건국	하느님 아들을 칭하는(또는 하느님 아들인) 해모수가 북부여 건국, 사마천이 (전국시대 : 서기전453~221년) 연나라 북쪽에 부여가 있었다고 한 『사기』의 부여가 이 북부여임.	내용 없음 (『삼국유사』의 북부여 역사 기록, 사마천이 연나라 북쪽에 부여가 있다고 한 『사기』 기록조차 부정해 왔음)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52	북부여 임금 칭호	해부루왕의 왕에서 보듯이 '왕(王)'	내용 없음 (『삼국유사』는 물론 중국 역사 기록인 『논형』 『위략』 『수신기』 『후한서』 『양서』 『수서』 『북사』 『법원주림』 등에 수록된 동명제의 부여 건국 기록조차 부정해 왔음)
53	북부여 건국 명분	① 천손족 부족연합국가인 고조선의 멸망으로 고조선에 속했던 많은 부족, 부족국가들이 혼란, 위기에 빠졌음. ② 하느님의 아들을 칭하는 해모수가 그러한 혼란·위기에서 천손족의 부족들, 부족국가들을 구할 명분으로 북부여를 건국.	
54	북부여 영토	서요하·동요하 유역으로부터 그 이북 지역, 내몽고·외몽고 동부, 흑룡강 유역 및 그 이북 지역 시베리아 북극해까지	
55	북부여 존속 기간	서기전 419년 ~ 서기전 108년 경(약 301년)	
56	북부여 멸망 원인	북부여의 마지막 왕인 해부루왕이 동명제에게 북부여 땅을 내어주고 동쪽의 연해주로 이동하여 감으로서 멸망.	
57	부여 건국	하느님 아들을 칭하는(또는 하느님 아들인) 동명(東明)이 서기전 108년 경에 북부여의 해부루왕을 동쪽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밀어내고 부여를 건국함.	
58	부여 임금 칭호	①황제를 뜻하는 제(帝). 예 ; 동명제(東明帝). ②왕(王)	
59	부여 건국 명분	한(漢)나라가 후조선을 멸망시킨 후, 임둔·진번·예·맥·북부여 등까지 직접 지배하려고 함. 그러나 고대 한국에 속한 나라 중에서 가장 큰 나라인 북부여의 해부루왕은 한나라 침략을 막을 능력이 없었음. 이에 하느님 아들을 칭하는(또는 하느님 아들인) 동명제가 북부여·임둔·진번·예·맥·옥저 등, 고대 한국 국가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여 건국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60	동명제의 항한(抗漢) 전쟁	동명제(東明帝)가 고대 한국의 서쪽 지역에 있던 국가들인 북부여・임둔・진번・예・맥・옥저인들을 규합하여 낙랑・임둔・진번・현도 등의 한나라 군현들을 집요하게 공격. 한나라가 견디지 못해 임둔・진번군을 폐지하고 현도군을 서쪽으로 옮김.	내용 없음
61	부여 영토	① 서요하・동요하 유역으로부터 그 이북 지역, 내몽고・외몽고 동부, 흑룡강 유역 및 그 이북 지역 시베리아 북극해까지. ② 부여 전성기에는 연해주 북부와 흑룡강 중・하류 유역의 숙신(말갈・읍루・물길)까지 지배.	동요하 유역의 작은 나라로 축소・왜곡한 교육
62	부여 존속 기간	서기전 108년 경 ~ 서기 494년(약 602년)	'부여는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고'라고 하여 부여를 서기 1세기 초에 건국된 국가로 왜곡함. {서기전 400년대에 건국된 해모수・해부루왕의 북부여, 서기전 108년경에 건국된 동명제(동명왕, 동명성왕)의 부여, 서기전 108년경에 건국된 해부루왕의 동부여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교육.}
63	부여와 중국 관계	①부여는 한(漢)나라를 자주 정벌함. 때문에 한(漢)나라 황제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부여왕의 장례에 수의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漢)나라 황제의 수의로만 사용하는 금루옥의(옥갑)를 미리 만들어 부여에서 가장 가까운 현도군 창고에 보관하여 두었음. ②이러한 『후한서』 『삼국지』 기록과 한나라와 흉노와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축소・왜곡한 교육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64	부여와 중국 관계	의 관계 등을 미루어 볼 때, 한나라는 이 옥갑 이외에도 매년 곡식·옷감·금 등을 부여에 보냈을 것. ③부여에게 한나라를 침략하지 말라는 의미와 부여로 하여금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것.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축소·왜곡한 교육
65	동부여 건국	① 해부루왕이 동명제에게 북부여 땅을 빼앗기고, 동쪽 멀리 길림성 동부·흑룡강성 동남부·연해주 지역으로 이동. ② 서요하·동요하 유역을 영역으로 한 부여의 동쪽에 있다 하여 동부여라고 함.	내용 없음 (부여와 동부여를 혼동)
66	동부여 존속 기간	서기전 108년경 ~ 서기 22년	
67	고구려의 후국 동부여	고구려 대무신왕 5년(서기 22년) 고구려가 동부여 금와왕을 죽이고 동부여를 복속시킴. 이후 고구려의 후국(속국) 형태로 존속함(부족·부족국가 연합국인 고구려에 속한 부족국가로 존속 / 고구려에 속한 부족국가들인 동부여·동예·맥·동옥저·북옥저 등은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후국들처럼 독자적인 정치·외교권을 가짐). 동부여가 광개토대왕 때에 종주국인 고구려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평정됨.	내용 없음 (서기 400년대 지도에 동부여 표기)
68	제2의 '요수(遼水)' 대요수	제2의 '요수(遼水)'는 대요수(大遼水)로 요동군 내부를 흐르던 강, 현재의 란하 중·하류.	고조선과 연(燕)나라 국경선이었던 요수(遼水)와 한(漢)나라 요동군 내부를 흐르는 대요수를 동일한 강, 현재의 요하로 가르침.
69	제3의 '요수(遼水)' 소요수	제3의 '요수(遼水)'는 현도군 내부를 흐르는 강으로 소요수(小遼水)라고도 함. 란하 본류로 흘러드는 란하 동쪽의 지류.	요하로 흘러드는 혼하(渾河)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70	제1의 갈석산	중국 상고시대의 때의 갈석산으로 태행산맥·항산산맥이 만나는 곳에 있었던 산.	내용 없음
71	제2의 갈석산	① 한나라 연(燕) 지역과 (후)조선의 국경선이었던 갈석산은 현재의 갈석산(碣石山:해발 695m)·조산(祖山:해발 1,428m)·장수산(長壽山:해발 약 907m)을 모두 포함한 산(山) 이름. ② 만리장성의 동쪽 시작점이 이 갈석산 남쪽 해안.	갈석산을 청천강(혹은 압록강) 유역에 있던 산, 혹은 청천강(혹은 압록강) 이남에 있던 산으로 가르침.
72	제3의 갈석산	현 창려현의 갈석산	내용 없음
73	제4의 갈석산	수경주의 대갈석산은 한(漢)·위(魏)·서진대의 갈석산이 아님.	내용 없음
74	만리장성의 동단	몽념이 쌓고, 사마천이 보고, 당빈이 수축하고, 태강지리지에서 증언한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호로도시(葫蘆島市) 수중현(綏中縣) 만가진(萬家鎮)의 지묘만(止錨灣)의 갈석궁 유지 인근을 포함하는} 하북성 진황도시 산해관 인근	① 한국에서는 요녕성 요양(遼陽:요양 요동군 양평으로 주장)으로 주장. ② 외국에서는 청천강(혹은 압록강) 하류 또는 대동강.
75	한족(韓族) 대이동 (한민족 대이동)	예·맥·옥저·부여·조선·낙랑 등의 각 부족 중에서도 한나라에 대항하자는 강경파와 한나라 지배를 피하여 동쪽으로 피해가자는 온건파로 나뉨. 남아 있는 부족명은 본래대로 '예·맥·옥저·부여·조선·낙랑'이라고 하고, 동쪽으로 이동한 부족 명을 동예·동맥·동옥저·북옥저·동부여·동조선·낙랑국이라고 함. 『후한서』와 『삼국지』의 저자들은 이 '예·맥·옥저·부여·조선·낙랑'과 '동예·동맥·동옥저·북옥저·동부여·동조선·낙랑국'을 같은 부족·나라로 오인.	내용 없음 ('예·맥·옥저·부여·조선·낙랑'과 '동예·동맥·동옥저·북옥저·동부여·동조선·낙랑국'을 같은 부족·나라로 혼동)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76	단단대령 위치	대흥안령산맥	한반도 북부의 낭림산맥
77	옥저 위치	대흥안령산맥 동남부의 내몽고・요녕성 서북지역	옥저와 동옥저를 동일시 함 함경남도
78	동옥저 위치	함경도	
79	북옥저 위치	연해주 북부 및 그 이북 지방	함경북도 경성(鏡城)과 그 인근
80	예 위치	란하 중・상류의 동부지역	예와 동예를 동일시 함 함경남도 일부 및 강원도 북부일부
81	동예 위치	함경남도 일부 및 강원도 북부일부	
82	맥 위치	란하 중・상류의 동부지역	맥과 동맥을 동일시함 강원도 일부
83	동맥 위치	강원도 일부	
84	진국 위치	요하 동쪽의 요녕성 중부지역	한강 이남지역
85	(동)조선 위치	고구려 남쪽의 조선으로 평안남도 일부・황해도 일부 지역	내용 없음{(동)조선을 낙랑군 조선현으로 인식}
86	낙랑국 위치	평양・평안남도	낙랑군으로 왜곡(평양・평안도 지역)
87	구사한국(변진구사국)	전라남도 해남과 그 인근 지역	경상남도 김해와 그 주변지역
88	한나라 동북지역 20개 군・국들의 위치	①한대(漢代)의 도로와 당대(唐代)의 도로를 비교하고, 한대의 고대도로와 현대도로의 거리를 비교하여 위치를 찾는 방법, ②도로의 굴곡지수와 수평직선거리로 위치를 찾는 방법, ③지도상의 단순거리로 위치를 찾는 방법 등의 수학적 위치고증 방법을 창안하여 요서군・요동속국・요동군・현도군・낙랑군	이러한 연구가 행해진 적이 없었음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89 ~ 102	한나라 동북지역 20개 군·국들의 실제 위치	·임둔군·진번군·거록군·상산국·중산국·안평국·하간국·청하국·발해군·탁군·광양군·대군·상곡군·어양군·우북평군 등 유주·기주에 속한 20개 군·국이 실재했던 위치를 고증한 결과 이 20개의 군·국들이 작게는 수백리에서 많게는 2,000~3,000리 이상 북·동북쪽 먼 곳에 있었던 것으로 왜곡되어 왔음을 증명하였음(낙랑·임둔·진번·현도군과 요동·요서군의 실제 위치와 왜곡된 위치는 앞 2쪽의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실제 한사군·요동군 위치도와 교과서의 왜곡된 한사군·요동군 위치도' 참조)	(요서군·요동속국·요동군·현도군·낙랑군·임둔군·진번군·거록군·상산국·중산국·안평국·하간국·청하국·발해군·탁군·광양군·대군·상곡군·어양군·우북평군 위치를 실재했던 위치보다 동북·북쪽 멀리에 있는 것으로 왜곡)
103	요동군과 조선의 경계선 만·번한 위치	하북성 진황도시 산해관 인근{호로도시(葫蘆島市) 수중현(綏中縣) 만가진(萬家鎮)의 지묘만(止錨灣)의 갈석궁 유지 인근을 포함하는 지역}	청천강 이북의 평북 박천군 또는 요녕성 해성(海城)
104	요동군의 위치	하북성 당산·진황도시와 그 인근 지역	요하부터 한국의 청천강(혹은 압록강)까지
105	요서군의 위치	북경·천진 및 그 인근 지역	하북성 당산시에서 요하까지
106	요동속국의 위치	천진·당산·진황도의 일부지역	요하 서쪽·발해 북안
107	현도군의 위치	란하 중류 유역{하북성 승덕(承德)·청룡(青龍)과 그 인근지역}	①함경도 서북 지역·평안도 동북 지역·압록강 유역 → ②요하 동쪽의 요양·무순과 그 인근 지역
108	현도군의 염난수 위치	란하 상류부터 란하 하류까지의 강 전체 {①염난수 길이 2,100리(한대의 1리 길이 0.42136km × 2,100리 = 855km, ②란하 길이 855km)로 정확히 일치}	압록강 길이 790km(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로 한대의 거리로 약 1,875리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109	낙랑군의 위치	대릉하 유역{요녕성 조양(朝陽)·의현(義縣)·금주(錦州)와 그 인근지역}	①평양·평안도 → ②평양·평안도·황해도·경기도 북부 → ③평양·평안도
110	임둔군의 위치	요녕성 흥성(興城)·금주(錦州)와 그 인근지역	함경도 함흥을 중심으로 한 함경도 지역
111	진번군의 위치	대릉하 동북지역·쌍료(雙遼)의 남서지역	황해도·한강 이북의 경기도 북부
112	대방군의 위치	요녕성 수중(綏中)·흥성(興城)·금주(錦州)와 그 인근지역	황해도·한강 이북의 경기도 북부
113	열수의 위치	요하와 대릉하 사이를 흐르는 요양하(繞陽河)	대동강
114	낙랑·대방군 유물·유적의 진위	낙랑군과 대방군이 한반도 북서부지역에 있었던 증거로 제시되어 온 평양·평안도·황해도 지역에서 발굴되었거나 출현한 유물·유적들은 위조품이거나 평양·평안도·황해도 지역이 중국과 독립적인 정치세력 국가가 있었던 증거	위조된 낙랑 유물과 평양·평안도·황해도 지역이 중국과 독립적인 정치세력 국가가 있었던 증거인 유물·유적을 낙랑군과 대방군 유물·유적으로 왜곡
	석암리 9호 무덤의 주인과 유물		
115	영수강녕 귀뉴옥인	① 낙랑군이 평양·평안도 지역에 존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유물. ② 평양·평안도가 중국 한(漢)나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 영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물. ③ 석암리 9호무덤 주인은 낙랑국, 부조국, 동조선 중의 한 국가의 왕.	한사군, 낙랑군, 낙랑·대방군이 한강 이북지역을 지배했다는 증거로 왜곡한 교육
116	금제 교구(대구)		
117	용문양 금동드리개장식		
118	용문양 옥벽		
119	옥돈과 장옥		
120	마구와 마차		
121	청동향로와 청동기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석암리 219호의 무덤 주인과 유물		
122	용문양 금동마면	① 낙랑군이 평양·평안도 지역에 존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유물. ② 평양·평안도가 중국 한(漢)나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 영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물. ③ 석암리 9호무덤 주인은 낙랑국, 부조국, 동조선 중 한 국가의 왕.	한사군, 낙랑군, 낙랑·대방군이 한강 이북지역을 지배했다는 증거로 왜곡한 교육
123	용문양 은제드리개장식		
124	마구와 마차		
125	청동향로와 청동기		
126	철복		
127	왕근신인 귀뉴동인	① 일본이 조직적으로 위조한 위조품 ② 위조품이 아니라 진품이라면 평양·평안도가 중국 한(漢)나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 영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물.	
128	왕근인신 귀뉴동인		
129	허리띠고리 (정백동 2호분, 정백동 17호분, 정백동 37호분, 정백동 92호분)	① 평양·평안도가 중국 한(漢)나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 영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물. ② 낙랑군이 평양·평안도 지역에 존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유물.	한사군, 낙랑군, 낙랑·대방군이 한강 이북지역을 지배했다는 증거로 왜곡한 교육
130	왕운 귀뉴동인	① '왕운'명 귀뉴동인, '한범군인'명 귀뉴동인, '왕선인신'명 사자뉴자모동인은 일본이 조직적으로 위조한 위조품. ② 만약 이 인장들이 진품이라면 낙랑군이 평양·평안도 지역에 존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유물.	한사군, 낙랑군, 낙랑·대방군이 한강 이북지역을 지배했다는 증거로 왜곡한 교육
131	한범군인 귀뉴동인		
132	사자뉴 자모동인		
133	임회태수장 귀뉴동인	일본이 조직적으로 위조한 위조품.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134	오관연왕우인 등의 목도장	‘오관연왕우인’, ‘왕우인신’, ‘낙랑태수연왕광지인’. ‘왕광사인’, ‘신광’ 등의 목도장은 일본인들이 위조한 위조품.	한사군, 낙랑군, 낙랑·대방군이 한강 이북지역을 지배했다는 증거로 왜곡한 교육
135	부조예군 인장	① 평양·평안도가 중국 한(漢)나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 영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물. ② 낙랑군이 평양·평안도 지역에 존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유물.	
136	고상현인과 부조장인		
137	삼세대금동인	① 평양·평안도가 중국 한(漢)나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 영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물. ② 낙랑군이 평양·평안도 지역에 존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유물.	내용 없음
138	삼세대동인		
139	‘낙랑예관’ 기와	일본이 조직적으로 위조한 위조품	한사군, 낙랑군, 낙랑·대방군이 한강 이북지역을 지배했다는 증거로 왜곡한 교육
140	‘낙랑부귀’ 명 기와	① 일본이 조직적으로 위조한 위조품 ② 만약 이들 와당(기와)이 진품이라면 낙랑군이 평양·평안도 지역에 존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유물. ③ 만약 진품이라면 평양·평안도가 중국 한(漢)나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 영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물.	
141	‘천추만세’ 명 기와		
142	‘만세’ 명 기와		
143	낙랑군 호구부	조악한 위조품	
144	점제현신사비	비석에 새겨진 글자, 발굴 당시의 기록, 조선시대의 금석문에 대한 기록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위조품이라는 것을 증명.	
145	낙랑 봉니 221개	221개의 낙랑봉니 전체가 일본이 조직적으로 위조한 것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146	반량전 전범들	① 평양·평안도가 중국 한(漢)나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 영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물. ② 낙랑군이 평양·평안도 지역에 존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유물.	한사군, 낙랑군, 낙랑·대방군이 한강 이북지역을 지배했다는 증거로 왜곡한 교육
147	오수전 전범들		
148	왕망전 전범들		
149	장잠현장 왕경묘의 벽돌과 유물	① 대방군이 황해도에 있을 수 없다는 증거 ② 장잠현장 왕경묘의 유물은 왕경이 요하 서쪽에 있던 대방군 장잠현장으로 있다가 고구려에 포로 잡히거나 고구려에 귀화한 사람이었다는 증거.	한사군, 낙랑군, 낙랑·대방군이 한강 이북지역을 지배했다는 증거로 왜곡한 교육
150	'영화 9년' 명 벽돌 (동리묘)	① '영화9년 명' 벽돌과 '대방태수 장무이묘'를 증명할 벽돌들은 모두 위조품. ② 만약 벽돌들이 위조품이 아니라면 두 무덤은 주인은 고구려 포로의 무덤이거나 고구려에 귀화한 사람들의 무덤.	한사군, 낙랑군, 낙랑·대방군이 한강 이북지역을 지배했다는 증거로 왜곡한 교육
151	대방태수 장무이묘		
152	'오관연작'명 벽돌	'오관연작'명 벽돌, '소명현'명 벽돌, '일민함자왕군전'명 벽돌은 모두 일본이 조직적으로 위조한 위조품.	한사군, 낙랑군, 낙랑·대방군이 한강 이북지역을 지배했다는 증거로 왜곡한 교육
153	'소명현'명 벽돌		
154	임둔태수장 봉니	임둔군이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녕성 흥성(興城)·금주(錦州)와 그 인근지역에 있었다는 증거	내용 없음
155	고대 한국의 성·요새 유적	내몽고 적봉 서쪽 멀리에서부터 요하 유역 및 압록강 북쪽에 이르는 성·새 유적들은 신시·고조선·북부여·부여·예·맥·옥저·고구려의 성·요새 유적	연(燕)·진(秦)의 장성·만리장성 유적으로 왜곡.
156	고구려 건국	하씨부족의 군장인 하백의 외손자로서 하느님의 아들을 칭하는 주몽이 서기전 37년 건국.	하백을 수신으로 오인.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157	하백	주몽의 외조부인 하백(河伯)은 '물 하(河)'자를 부족명으로 사용하는 부족국가의 수장, 역사상 100명 이상의 하백이 존재.	하백을 수신으로 오인
158	주몽과 동명성왕	고구려 건국 시조는 하느님의 아들을 칭하는 추모성왕(혹은 추모왕) 주몽. 동명성왕(혹은 동명왕)은 고구려의 건국시조가 아니라 북부여를 계승한 부여의 황제인 동명제(東明帝). 동명성왕이 고구려 건국시조로 기록된 이유는 동명제의 부여 역사를 말살하고, 부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 왜곡.	고구려 건국시조를 동명성왕으로 왜곡.
159	주몽의 남하 과정	① 고구려와 부여가 실존할 당시의 기록인 위서, 북제서의 기록에 주몽이 부여에서 동남쪽으로 달아났다고 기록. 북사, 수서, 통전 또한 동일하게 기록. ② 이는 주몽이 서요하 유역에 있던 부여에서 동남쪽인 졸본부여로 내려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 광개토호태왕비에는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기록.	①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는 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주몽이 건국'으로 왜곡. ②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남쪽으로 내려 왔다는 기록 없음.
160	고구려 건국 세력	주몽이 졸본부여 왕의 사위가 되어 졸본부여 왕위를 계승한 후 졸본부여의 세력을 기반으로 고구려를 건국	내용 없음
161	고구려 국가 형태	① 고구려는 고구려를 정복한 국가를 직접 지배하는 중앙집권국가가 아니라 정복한 국가·부족들에게 독립과 자치를 허용하는 부족·부족국가들의 연합국가로서의 제국(帝國). ② 종주국인 주(周)나라와 수많은 제후국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국가 형태와 유사.	소국들을 정복하고, 5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162	고구려 모본왕의 중국 정벌	서기 49년, 고구려 모본왕이 낙랑군, 현도군, 요동군, 요서군, 우북평군, 어양군, 상곡군, 태원군 등을 정벌하였음. 태원군은 한나라의 수도 낙양과 가까운 곳.	내용 없음
163	고구려 초기 영토	서기 50년 전후의 고구려 영역은 서쪽으로는 요하 서쪽, 남쪽으로는 평양·평안도, 동쪽으로는 함경도·연해주, 북쪽으로는 흑룡강 유역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가진 제국.	고구려 건국 후부터 낙랑군·대방군이 소멸되는 서기 313년경까지 고구려 영토를 압록강 유역의 작은 나라로 왜곡.
164	고구려 중기 영토	서기 300년대의 고구려 영역은 란하 유역까지	요하 동쪽의 작은 나라
165	고구려 최대 영토	서쪽은 란하 유역, 북쪽으로는 서요하 및 그 이북의 내몽고, 흑룡강 유역 및 그 이북의 북극해까지, 동쪽으로는 연해주와 그 북쪽지역 및 함경도·강원도 일부를 포함한 광활한 지역	요하 중하류로부터 동쪽지역, 두만강 바로 북쪽까지의 작은 지역
166	백제의 중국 동부지역 지배	서기 300년 전후, 서진 말기의 혼란을 이용하여 북경·천진으로부터 산동반도·장강(양자강)유역에 이르는 중국 동부지역을 정복하고 약 200년간 지배하였음.	백제는 수군을 정비하여 중국의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였고, 이어서 산동 지방과 일본의 규수 지방까지 진출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였음.
167	숙신·읍루·물길·말갈과의 관계	① 숙신·읍루·물길·말갈족은 부여·고구려족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피가 흐르는 같은 종족. ② 숙신은 고조선에 속했고, 숙신이 이름을 바꾼 읍루, 읍루가 이름을 바꾼 물길, 물길이 이름을 바꾼 말갈은 부여에 속하기도 하였고 고구려에 속하기도 하였음.	숙신·읍루·물길·말갈족의 역사를 한국사에서 제외
168	발해의 건국 세력	말갈은 본래 부여·고구려와 같은 종족이고,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백제인이 말갈인의 90% 내외를 차지하였음. 따라서 발해는 고구려·백제·말갈인이 세운 국가임.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주류 사학자들은 고구려인이 지배층, 말갈족이 피지배층으로 주장하고 가르침)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169	여진·만주족과 한국인과의 관계	① 금나라를 세워 중국 중·북부지역을 지배한 여진족, 청나라를 세워 오늘날의 중국 영토로 확장하고 1913년까지 중국을 지배한 만주족은 부여·고구려·백제·말갈인의 후예. ② 그러므로 여진족과 여진족이 이름을 바꾼 만주족은 한국인과 같은 혈통, 같은 뿌리를 가진 종족.	여진·만주족의 역사를 한국사에서 제외
170	수·당나라와 고구려 간의 전쟁 원인	① 고구려 평양성 등이 중국의 영토라는 중국인들의 왜곡된 역사인식, 따라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영토를 차지해야 완전한 중국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수·당나라 사람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된 수·당나라의 고토수복전쟁. ② 고구려의 왕과 관리들도 중국에 의해 왜곡된 역사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므로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등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한강(한수) 북쪽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음. 때문에 수·당나라의 고토수복 전쟁론에 대응할 수 없었고, 고구려의 멸망으로 이어짐. ③ 고구려 정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말갈족의 식량 약탈을 고구려 침공으로 조작.	수와 고구려의 패권다툼, 고구려의 선공(先攻)
171	수·당나라와 고구려 간의 전쟁 명칭	71년간 이어진 71년 전쟁, 수·당나라의 고토수복전쟁.	내용 없음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172	수 문제의 기습 침략과 요하대첩	① 수 문제 재위 18년(서기 598년) 3월 16일(음력 2월 4일) 육·해군 300,000명으로 기습 공격하여 10월 26일(음력 9월 21일) 철군. ② 고구려 군의 반격으로 7개월 10일 동안 수나라 30만 대군 중 10중 8~9가 전사하고, 약 45,000명 살아서 달아났음.	내용 없음
173	금나라 건국 시조	금나라를 건국한 여진족은 부여·고구려·백제·말갈의 후손이고, 금나라 건국시조는 신라·고려인인 함보의 자손임.	내용 없음
174	비단의 원조는 한국	홍산문화(서기전 4710 ~ 서기전 2920년)의 '옥으로 누에를 만들어 구멍을 내어 목에 걸고 다니던 옥잠(玉蠶)' 유물들로 볼 때, 고대 한국인(신시인)은 6,000년 전 전후에 이미 누에를 길러 명주실을 뽑아 명주·비단 옷을 만들어 입었음을 알 수 있음.	내용 없음
175	백의 민족과 목화	2,000년 이전부터 한국인 조상들은 청결한 것을 좋아하여 일을 할 때조차 목화로 만든 면직물로 흰옷을 만들어 입었고, 제천축제, 모임 등에는 흰 비단·명주옷을 입었음.	고려 말기 문익점이 목화씨를 수입함으로써 비로소 면직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으로 교육하여 왔음.
176	천문·기상예측	약 7천년 전 경에 건국된 신시의 운사(천문관측·예언)라는 직책이 있고, 후한서에 '예에서 별자리를 살펴 기후의 변화를 예측한다. 천문을 보아 매년 풍년인지 흉년인지 미리 알아낸다.'는 기록이 있으며, 후한서와 삼국지에 '고구려가 영성신에게 제사지낸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별자리를 살펴 기상을 예측하는 문화가 7천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내용 없음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177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	신시・북부여・부여・고구려・신라・가야인은 하느님의 아들이 건국한 나라, 고조선・백제인은 하느님의 손자가 건국한 나라라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이 '하느님의 친 자손(천손)'이라는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었음.	내용 없음
178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	① 굶주려도 구걸하지 않았고,	
179		② 길에 떨어진 값진 물건도 줍지 않았으며,	
180		③ 강도・절도・강간・간음・폭행 등의 죄를 범하지 않았고,	
181		④ 남녀・빈부・귀천으로 차별하지 않았으며,	
182		⑤ 빈부귀천 없이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고,	
183		⑥ 아주 부지런하며,	
184		⑦ 매우 청결하고,	
185		⑧ 대단히 예의 바르며,	
186		⑨ 부모에 지극히 효도하고,	
187		⑩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며,	
188		⑪ 청렴 강직한 삶을 실천하는 등의 완벽한 도덕군자의 삶을 살았고,	
189		⑫ 전쟁에서는 죽음을 두려워 않는 용감무쌍한 전사・영웅이었으며,	
190		⑬ 춤, 노래, 연주를 즐기는 낙천적인 삶을 살았고,	
191		⑭ 옳고 바르게 살다 죽으면 조상들의 나라인 천국에 올라 안락한 삶을 영원히 누린다고 믿고 사는 정신문화(천손문화)를 가지고 있었음.	

NO	주 요 항 목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 내용
192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	⑮ 이러한 한국의 천손문화를 동경한 중국인들이 『산해경』에, “조선인들은 하느님이 기르고 다스리는데, 서로서로 아끼고 사랑한다.”고 기록하였고,	내용 없음
193		⑯ 『예기』「왕제」편에 “한국인(이夷라는 자들)의 근본은 언어가 어질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만물의 근본이 되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천성이 유순하다. 역易과 도道를 닦아 군자가 되어 죽지 않는 나라”라고 기록한 것이며,	
194		⑰ 2500년 전후를 살던 공자조차 중국에서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한탄하며, 고대 한국 문화를 동경하여 고대 한국(구이)에 와서 살고 싶어 할 정도로 고대한국인들은 높은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었음.	
195	중국의 도량형	고대 중국이 언제부터 왜, 지역과 지역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도량형을 사용하여 왔는지를 밝혀 냈음	
196		한(漢)나라 때의 거리 단위(분, 촌, 척, 장, 인 및 보, 리)의 길이의 크기를 밝혀냄	
197		당(唐)나라 때의 거리 단위(분, 촌, 척, 장, 인 및 보, 리)의 길이의 크기를 밝혀냄	
198		중국의 곡식 계량단위를 밝혀냄	
199	백제는 황제국	백제가 중국 동부지역을 영토로 했을 당시, 백제는 수많은 제후왕들과 제후들을 거느린 황제국 이었음.	
	위치를 알 수 없는 지점, 지역, 국가 등의 위치를 찾는 방법 창안		
200	고대도로와 현대도로의 거리를 비교하여 위치를 찾는 방법		
201	도로의 굴곡지수와 수평직선거리로 위치를 찾는 방법		
202	지도상의 단순거리로 위치를 찾는 방법		

위 '김종서 박사가 밝혀낸 한국사의 진실'과 '축소, 말살, 왜곡된 한국사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은 김종서 박사의 연구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한국사 교과서 바로잡기 1,000장면』 1권(2015. 4. 13. 출간), 2. 『한국사 교과서 바로잡기 1,000장면』 2권(2016. 3. 4 출간), 3. 『한국사 교과서 바로잡기 1,000장면』 3권(2016. 10월 출간 예정.) 4.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 (중국 역사기록의 증언 1)』(2014. 06. 17. 출간), 5.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2권 (중국 역사기록의 증언 2)』(2014. 08. 12. 출간), 6.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3권 (중국 역사기록과 도로의 증언)』(2015. 02. 16. 출간), 7.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4권 (중국 역사기록과 지도의 증언)』(2015. 02. 23. 출간), 8.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5권 (중국 역사지도와 수학의 증언)』(2015. 02. 16. 출간), 9.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6권 (가짜 낙랑 유물과 수학의 증언)』(2016. 03. 24 출간), 10.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7권 (가짜 낙랑 유물의 증언)』(2016. 06. 07. 출간), 11.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8권 (가짜 낙랑 유물과 만리장성의 증언)』(2016. 06. 08. 출간), 12.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9권 (세계 최초의 문명인 한국 문명의 증언)』(2016. 06. 08. 출간), 13. 『신시·단군조선사 연구』(2003. 08. 13. 출간), 14. 『단군조선 영토 연구』(2004. 07. 28. 출간), 15. 『신시·단군조선사 연구』 수정증보판(2004. 08. 15. 출간), 16. 『기자·위만조선 연구』(2004. 10. 10. 출간), 17. 『신시·단군조선사 연구』 수정증보판(2004. 10. 15. 출간), 18. 『단군조선영토 연구』 수정증보판(2004. 10. 15. 출간), 19.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2005. 10. 26. 출간), 20. 『부여·고구려 백제사 연구』(2006. 07. 07. 출간), 21.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 비정 연구(박사학위 논문』(2005년), 22. 『잃어버린 한국의 고유문화』(2007. 09. 10. 출간), 23. 『신의 자손 한국인』(2007. 10. 08. 출간), 24. 『신의 자손 한국인』 증보판(2008. 01. 02. 출간).